

KIA 중위권 도약, 외국인군단이 해줄 때다



윌랜드

터커

터너

T 타이거즈 전망대

■ KBO 중간순위 (24일 현재)

순	팀명	경기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SK	77	51	25	1	0.671	0.0
2	두산	78	48	30	0	0.615	4.0
3	LG	76	43	32	1	0.573	7.5
4	키움	79	45	34	0	0.570	7.5
5	NC	76	37	39	0	0.487	14.0
6	삼성	76	33	43	0	0.434	18.0
7	KIA	76	32	43	1	0.427	18.5
8	KT	78	33	45	0	0.423	19.0
9	한화	76	31	45	0	0.408	20.0
10	롯데	76	29	46	1	0.387	21.5

반전에 성공한 KIA 타이거즈의 상승세 잇기에 '외국인 3인방'의 역할이 중요하다.

KIA는 지난주 1위 SK 와이번스, 3위 LG 트윈스와의 승부에서 4승 2패를 수확하면서 모처럼 기분 좋은 휴식일을 보냈다.

역시 마운드에서는 '에이스' 양현종이 등장했다. 18일 SK와의 첫 경기에서 최형우의 역전 스리런에 힘입은 양현종이 7이닝 2실점으로 승리의 포문을 열었고, 23일 LG에는 7이닝 무실점

윌랜드

15경기 방어율 4.76... 4승 4패
결정적 순간 장타 허용 '약점'
오늘 선발 등판... 팀 연습 도전

호투로 한 주의 마지막도 승리로 장식했다. 4·5선발들도 반전의 한 주에 힘을 보탤다.

불펜 난조로 승리는 챙기지 못했지만 흥건희가 7이닝 2실점의 '인생투'로 SK전 위닝 시리즈를 이끌었고, 한 차례 선발 등판을 쉬었던 차명진은 5이닝 1실점의 호투로 3·2경기의 승리투수가 됐다.

문경찬의 활약도 돋보였다. 문경찬은 세 차례 승리를 마무리하면서 3세이브를 더했고, 올 시즌 평균자책점을 0.96으로 끌어내렸다.

주말 3연전에서는 박찬호의 활약이 눈부셨다. 지난 21일 3안타 3타점 활약에도 8·9 끝내기 패를 당하면서 아쉬워했던 박찬호는 23일에는 무려 5개의 안타를 터트리면서 주목을 받았다.

최형우도 지난주 5경기에서 나와 홈런 두 방 포함 0.375의 타율로 7타점을 만들어주면서 신구 조화를 이뤘다.

외국인 선수들의 부진은 역시 아쉽다.

터커

31경기 타율 0.295... 15타점
외국인 타자 압도적 폭발력 부족
'안치홍 공백' 중심타선 역할 필요

올 시즌 KIA는 외국인 선수들을 전면 교체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하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윌랜드가 15경기에서 4.76의 평균자책점으로 4승 4패, 터너 역시 16경기에서 5.36의 평균자책점을 찍으며 4승 8패로 부진하다. 승리가 이어졌던 지난 주에도 두 선수는 제 몫을 하지 못했다. 두 외국인 투수가 나온 날 KIA의 2패가 기록됐다.

지난 19일 SK 김광현과의 맞대결에 나선던 윌랜드는 6이닝 5실점으로 패전투수가 됐다. 정운에게 스리런을 맞은 등 8피안타 5실점을 했다.

앞서 두 차례 LG와의 맞대결에서 모두 패전투수가 됐던 터너는 이번 등판에서는 패전은 면했지만 4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5이닝 6실점을 했다. 경기 8·9, 끝내기 패.

두 선수는 결정적인 순간 한방을 맞는 등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투구 이닝도

터너

16경기 방어율 5.36... 4승 8패
'이닝 이터' 존재감 부족
마운드 안정·상승세 주도해야

부족하다. 두 선수는 각각 90.2이닝을 소화하는데 그치고 있다. 새 외국인 타자로 등장했던 해즐베이커는 올 시즌 KBO리그 1호 퇴출 외국인 선수로 되면서, 터커가 두 번째 타자로 뒤고 있다.

31경기에서 나온 터커는 0.295의 타율과 함께 2홈런 15타점을 기록하고 있다. 뒤늦게 새로운 리그에 뛰어든다는 것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성적이지만 외국인 타자에게 기대하는 폭발력은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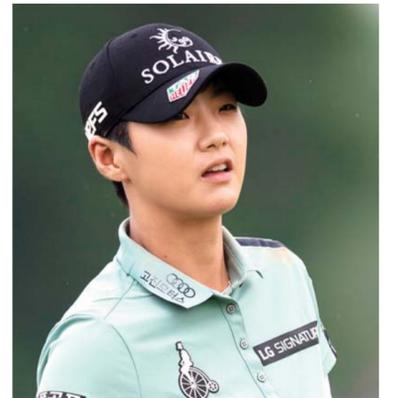
상승세였던 안치홍이 주루 도중 손가락 부상을 당해 엔트리에서 빠진 만큼 중심타선에서 터커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

KIA는 25일 윌랜드를 시작으로 3연승에 도전한다.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외국인 선수들이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승리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아! 1타

박성현 여자 PGA 챔피언십 준우승



박성현이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총상금 385만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맹렬한 추격전을 펼쳤으나 2위로 대회를 마쳤다.

박성현은 24일 미국 미네소타주 채스카의 헤이즐턴 내셔널 골프클럽(파72·6657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1개로 4타를 줄였다.

최종합계 8언더파 280타를 친 지난해 이 대회 챔피언 박성현은 9언더파 279타의 해나 그린(호주)에게 1타 차로 우승컵을 내줬다.

3라운드까지 그린에게 5타 뒤진 공동 5위였던 박성현은 1타 차로 추격하며 그린을 압박했다.

15번 홀(파5) 버디로 1타 차를 만든 박성현이 17번 홀(파3)에서 약 2.5m 거리 버디 기회를 만들면서 대회장에는 연장전 기운이 감돌았다. 하지만 16번 홀(파4)에서 경기하던 그린의 약 6m의 만만치 않은 버디 퍼트를 넣었고, 반대로 박성현은 버디 기회를 놓쳤다.

박성현은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 6m 중거리 퍼트를 깔끔하게 넣고 다시 한번 그린을 1타 차로 압박했다.

하지만 마지막 홀 두 번째 샷을 벅커에 보내며 위기를 맞은 그린은 벅커샷으로 공을 홀 약 1.5m 지점에 보내고, 마지막 파 퍼트를 넣으며 숨죽였던 명승부가 끝났다.

연합뉴스

전남 '정신력 강화'

K리그2 8위... 멘탈 프로그램 시작

전남드래곤즈가 연승에 실패했지만 8위 자리는 지켰다. 전남은 지난 23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9 K리그2 1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2로 졌다.

앞선 15라운드에서 서울이랜드를 상대로 연패에서 탈출했던 전남은 상승세를 잊지 못했다.

전남은 골키퍼 박준혁의 선발로 초반 안양의 공세를 막았지만 전반 28분 팔라시오스의 원발에 선제골을 내줬다.

후반 적극적인 공격으로 점유율을 높인 전남은 후반 20분 마침내 안양의 골망을 흔들었다.

오른쪽에서 치고 오른 이슬찬의 패스를 받은 김건용이 헤더로 1-1을 만들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비디오판독 결과 이슬찬이 패스를 하기 전에 손으로 상대 선수의 얼굴을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면서 골은 무효 처리됐다.

전남은 교체 카드로 분위기가 반전에 나섰고, 작전은 성공했다.

후반 30분 김민준을 대신해 그라운드에 오른 이우현이 36분 날카로운 원발 슈트로 '진짜 골'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골의 여운은 짧았다. 후반 40분 페널티 지역에서 전남 이자남의 핸드볼 반칙이 나오면서 비디오판독 끝에 안양의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키커로 나서 알렉스가 골에 성공하면서 경기는 1-2, 전남의 패배로 끝났다. 승점은 더하지 못했지만 9위 대전시타즈도 아산 무궁화에 0-1로 지면서, 전남은 8위 자리를 지켰다.

한편 전남은 선수들의 멘탈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지난 21일 포스코교육관에서 국민대학교 리더십 코칭교수인 박창규 교수(국제공인 마스터코치)의 첫 강의를 진행했으며, 전남은 7번의 강의를 통해 선수들의 심리와 정신 강화를 통한 성적 향상을 꾀하게 된다.

7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고 vs 동성고' 광주 야구명문 외나무다리 결투

황금사자기 대회 8강 진출
내일 4강행 놓고 진검 승부

'디펜딩 챔피언' 광주일고와 '주말리그 12연승'의 광주 동성고가 황금사자기 8강 길목에서 만난다.

광주일고는 지난 23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73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16강에서 휘문고를 상대로 8-0, 7회 콜드승을 거뒀다.

동성고도 포항제철고와의 16강전에서 9회말 1사 만루의 위기를 넘기며 7-6으로 8강행을 확정했다.

지역 라이벌인 두 팀은 26일 오후 3시 목동구장에서 준결승 진출을 놓고 다투게 된다.

프로야구 '1차 지명 후보' 투수 정해영과 중견수 박시원(내부 경쟁으로 눈길을 끌었던 광주일고)은 상대의 실수 연발 속에 콜드게임승으로 마무리했다.

선발로 나선 정해영이 6이닝 2피안타 3볼넷 5탈삼진 무실점의 피칭으로 승리투수가 됐고, 몰타자 박시원은 멀티 히트와 함께 두 차례 도루를 기록하는 등 휘문고 수비를 흔들며 승리에 기여했다.

또 5번 타자 조형우는 6회 승리에 쐬기를 박는 투런포를 날리는 등 멀티히트와 함께 4타점을 싹쓸이했다.

동성고는 9회말 진담 승부 끝에 승리를 확정했다. 동성고가 2-1로 앞선 5회 선두타자 이범준의



광주일고 야구부가 지난 23일 서울 목동운동장에서 열린 제 73회 황금사자기 전국 고교야구대회에서 휘문고에 콜드 게임승을 거두고 환호하고 있다.

〈동아일보 제공〉

우중간 안타를 시작으로 공세에 나섰고, 상대 실책 등을 더해 5-1로 달아났다.

하지만 5회말 1점을 내준 동성고가 6회말 야수 선택과 폭투 등으로 3실점을 하면 5-5 동점을 허용했다. 7회 최지강의 우월 솔로포로 리드를 잡은 동성고는 이후 1점씩을 주고받으면서 7-6에서 9회말

마지막 수비에 들어갔다.

김영현이 선두타자를 중전안타로 출루시킨 헛스윙 삼진으로 원아웃을 잡았지만 안타와 몸에 맞는 볼로 1사 만루에 몰렸다. 동성고는 1학년 강속구 투수 신현민을 투입해 삼진과 포수 땅볼로 남은 아웃카운트 두 개를 채우면서 승리를 확정했다.

한편, 정읍 인상고는 천안북일고를 상대로 15-2, 5회 콜드게임승을 거두며 대회 이번의 주인공이 됐다.

선발 전원안타가 기록됐고 4번 타자 이승호가 투런 포함 2안타 3타점의 활약을 펼쳤다.

7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7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